

AI 인프라 수요는 지속 전망

Market Time

[시황/디지털자산]
양현경

02-2122-9213
beeb2724@imfnsec.com

[오늘의 시황] AI 인프라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나 금일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유의해야 합니다.

MSCI 한국 ETF(+1.88%) 상승에는 전일 코스피(+3.29%)의 반등이 반영된 가운데, 코스피 야간선물(-0.6%) 하락한 가운데 금일 국내 증시는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로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는 AI 인프라 수요가 여전히 강하며, 이를 충족할 생산능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삼성전기 패키징 기판 공급망 합류를 발표한 점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우호적인 재료입니다. 마이크론 역시 27~28년 메모리 공급 부족을 전망했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메모리 가격과 국내 메모리 업체의 실적 기대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장 마감 후 메타는 매출 호실적과 Capex 전망치 하단을 상향조정하며 시간외 거래에서 3% 상승한 반면, 램리서치는 실적 발표 후 시간외거래에서 -2% 하락해 국내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주가 반응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유가도 장중 확인해야 할 변수입니다. 러우 협상 재개 기대로 WTI는 하락했지만, 미국이 사우디 주재 일부 외교 인력의 출국을 명령하는 등 중동의 긴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재차 상승할 경우 달러-원 환율 상승 압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금일은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는지와 메모리와 AI 밸류체인 관련주가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발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거래일 국내 증시] SMCI 실적 호조 및 반도체 수출 호조에 국내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3.29%), 코스닥(+1.38%)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반도체 대형주 매수에 코스피는 전일 급락 이후 하루 만에 반등했으며, 장중 +4.75%까지 상승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하락 종목이 약 490개로 상승 종목 약 370개를 상회하며, 지수 상승이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된 모습입니다. 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 잠정 매출과 매출총이익률 전망 향상이 AI 서버 수요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여기에 10월 1~20일 반도체 수출 호조가 더해지며 최근 급락했던 반도체주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SK하이닉스를 19거래일 만에 순매수했다는 점은 수급 측면의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AI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남아 있는 가운데, 견조한 실물 수요를 확인하며 반도체의 과도한 가격 조정을 되돌린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관은 장 마감 기준 순매도했고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아,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 회복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는 5,700선과 5일 이동평균선인 5,656선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장중 돌파했던 5,800선에서 밀렸고, 전일 하락폭의 약 85%를 만회하는 데 그쳐 추세 전환을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단기적으로는 5일선 위에서 저점을 높이는지와 5,800선의 저항을 넘어서는지가 중요합니다.

[수급]

주체별: 코스피는 외국인 +6,490억원 순매수, 개인 -1조 1,150억원, 기관 -817억원 순매도. 외국인 매수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되며 지수 반등 견인, 기관은 장 마감 기준 매도 우위. 코스닥은 기관 +1,055억원, 개인 +553억원 순매수, 외국인 -1,755억원 순매도. 기관 매수 전환에도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며 코스피 대비 제한적인 상승

[업종/테마]

- **대형 반도체·소부장 반등:**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실적 전망 향상과 반도체 수출 호조에 삼성전자(+5.67%), SK하이닉스(+5.81%) 급등. 주성엔지니어링(+3.48%), 이오테크닉스(+2.14%)도 동반 상승
- **전력기기 강세:** AI 서버 수요 기대 회복과 LS ELECTRIC의 실적 호조에 관련주 반등. LS ELECTRIC(+7.02%), 효성중공업(+3.01%), HD현대일렉트릭(+2.36%) 상승
- **제약·바이오 반등:** 미국 헬스케어 업종 강세, 장기채 금리 하락 기대 확대, 알테오젠(+3.90%), 삼천당제약(+3.66%), 리가켄바이오(+2.00%)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1.87%)도 종파업 연기 소식에 강세
- **이차전지 혼조:** 에코프로비엠(+3.33%)은 반등했으나 에코프로(+0.12%)는 강보합. LG에너지솔루션(-0.60%), 삼성SDI(-0.36%)는 하락하며 업종 내 회복 강도 차별화

[특징주]

- **SK(+12.62%)**: 얼라인파트너스의 지분 약 1.5% 보유 공개와 이중 지주회사 구조에 따른 저평가 지적에 기업가치 제고 및 할인을 축소 기대가 부각되며 급등

- **엘리스(+29.92%)**: 상장 첫날 급락 이후 저가 매수와 AI 투자심리 개선에 상한가 마감. 종가는 7만9,900원으로 공모가 9만500원은 여전히 하회

[해외 중시] 스페이스X, 슈퍼마이크로컴퓨터 호실적에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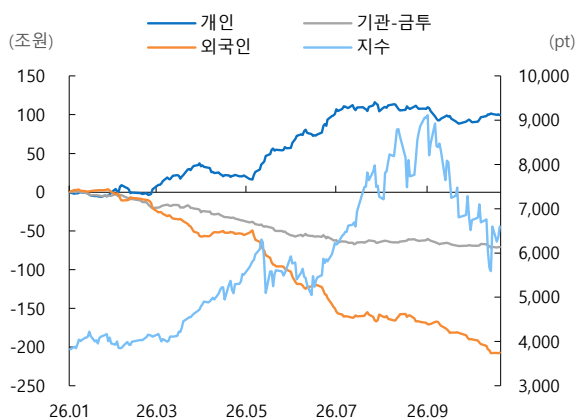
미 증시는 스페이스X와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실적 호조가 AI 투자심리 회복을 이끌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0.69%), S&P500(+0.58%), 나스닥(+1.05%)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스페이스X(+7.8%)는 예상치를 상회한 이익을 발표했고, 슈퍼마이크로컴퓨터(+9.6%)는 AI 서버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기존 전망을 상회하는 잠정 매출과 수익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1.97%)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AI 투자비용과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가운데, 견조한 수요가 기업 실적으로 확인된 점이 반등을 뒷받침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 완화 기대도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재개 가능성과 미-이란 협상 기대에 국제유가가 하락 전환하고 국제금리도 안정됐습니다. 다만 장 후반 중동 지역 미국 공관 직원 철수 관련 보도로 유가와 금리가 반등하면서 지수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일과 비슷한 5.12%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종목별로는 넷플릭스(-5.3%)가 부진한 4분기 전망에 하락했고, AT&T(-6.5%) 등 통신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어워브(-0.5%) 역시 장중 등락 끝에 하락 마감해, AI 수요에 대한 기대 회복 속에서도 기업별 수익성과 자금조달 여건에 따른 차별화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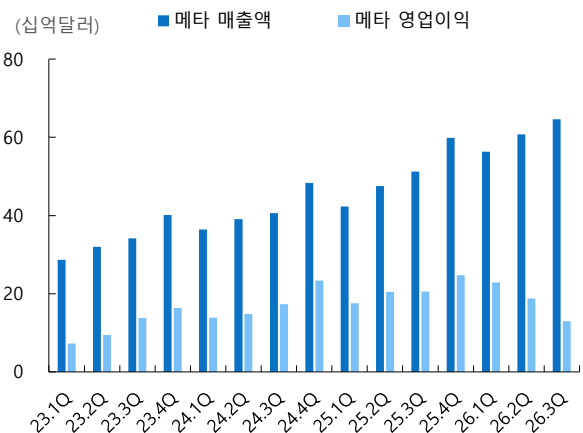
항목	증가	등락	항목	증가	수익
KOSPI	5735.66	3.29%	DOW	52856.09	0.69%
KOSDAQ	792.76	1.38%	NASDAQ	29822.52	1.05%
필라델피아 반도체	11505.556	1.97%	S&P500	7757.17	0.58%
달러-원 환율	1327.06	0.42원	달러 인덱스	101.703	0.00pt
국고채 3년물	3.811	-2.40bp	미 국채 10년물	5.119	1.05bp
WTI	97.15	-4.56%	비트코인	84610.99	2.26%

[Key Chart] 슈퍼마이크로컴퓨터 호실적, 반도체 수출 호조에 외국인 순매수 전환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Key Chart] 메타 견조한 매출 실적 발표, Capex 전망치 1,300억~1,450억달러에서 1,350억~1,450억달러로 하단 상향 조정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양현경)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